

동원시스템즈(주) 함안공장

성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겸비한 최고의 사업장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ishu002@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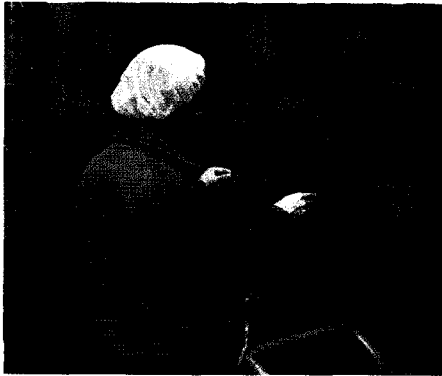


동원시스템즈(주) 함안공장은 DRD CAN(몸체)과 EOE(뚜껑)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연간 10억개 이상의 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외수출액만도 연간 1,000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또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VISION을 가지고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그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및 ISO9001, ISO14001, ISO22000 등의 안전, 환경 시스템인증을 획득한 기업이기도 하다.

안전과 환경을 테마로 매년 10%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원시스템즈(주) 함안공장을 찾아가봤다.

그룹 경영이념을 ‘안전문화’로 승화

동원시스템즈(주) 함안공장(이하 ‘함안공장’)은 프레스 17대와 전단기 4대로 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위험업종으로 1988년 가동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9년 동원그룹에 편입된 이후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을 이념으로 삼아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실천교육을 월례화하고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생산도 하지 마라’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적극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안전 사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생산성도 안정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경영의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동종업계에서 처음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품질관리시스템은 회사실정에 맞게 차츰차츰 안전, 품질, 생산, 재고, 물류, 환경으로 범위를 넓혀 현재의 통합적관리시스템으로 정착했고, 회사 경쟁력이 여타 글로벌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



배려하는 마음이 무재해의 원천

현재 10년째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함안공장은 지난 1월 27일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회사 관리시스템이 잘 적용됐다는 이유도 있지만 모든 직원들이 한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업과 안전활동에 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곳은 직원들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에 달한다. 근무형태가 2교대인 작업여건에서 평균근속연수가 10년이라는 것은 일할 맛나는 기업이 아닌이상 보기 드문 현상이다. 함안공장에서는 직원들간의 유대관계가 다른 회사들과 사뭇 다르다. 작업현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 바로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안전한 함안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자발적인 "새벽시장"과 "119시스템", 함안공장의 핵

함안공장의 특징 중 하나는 직원들 스스로가 새벽시장과 119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관리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만나는 것을 함안공장에서는 '새벽시장'이라 부른다. 온갖 정보를 주고받는다든가 의미가 붙여진 "새벽시장"은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출된 문제점은 새벽시장이 끝난 후 바로 당일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즉시 개선한다. 이때 '119시스템'과 연계하여 안전 관련 문제는 즉시 해결한다.

이렇게 "새벽시장"과 "119시스템"을 적용한 생산현장에는 위험한 사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프레스와 전단기는 안전덮개가 부착되어 있고, 설비에는 광전자식 장치 등 모든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즉 위험발생 요소와 사람을 100% 격리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해 생산성도 높이면서 "일거양득"을 피부로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 이행해도 환경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상황에 메뉴얼 작업도 갖추고 있다. 한 예로 기계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주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반에 '수리중 조작금지' Tag를 부착하는 것과 작업시 안전블럭 사용, 작업지휘자도 배치 등도 메뉴얼화 되어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위험

이곳은 매일 아침 반야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수시로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함안공장 근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결국 직원들의 확고한 의식은 "새벽시장"과 "119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랜기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앞으로도 탄탄하게 운영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함안공장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지내는 직원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다친다면 목표달성은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배려하는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정진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



조 점근 대표이사

인류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원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을 가져오고 나아가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회사중점 시책 중의 하나가 소통과 협조를 통한 열린 경영입니다. 관리직과 생산직 구분 없이 열린 경영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조를 통해서 올해 경영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관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지요.

전 몇 년 후에 함안공장의 최고 기술장들이 인류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관유통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그려보곤 합니다. 이제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의 보관 유통을 우리 함안공장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